

## 대학입시 제도의 정상화 방안



조 정 원  
경희대 총장

어느새 대학입학 시즌이 다가왔다. 예년과는 달리 수시모집 시기가 9월부터 시작되면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대학을 방문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기중이어서 그런지 교복차림을 하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나라 대학입시 제도의 형태는 수시로 변천해 왔지만 아직도 전형의 도구들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국가에서 치르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은 여전히 대학입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고사도 과목 수가 줄기는 했으나 논술 시험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면접고사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전인적 평가를 해야 할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공정성 확보라는 이름하에 채점하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세계 어느 나라 대학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을 연출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입시에서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2002년부터 입시제도의 틀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입시유형이 생겨나고 대학에 많은 자율권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학입시가 이제는 전적으로 대학의 몫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대학은 나름대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나라 대학이 입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에 성적으로만 한 줄 세우기를 하던 입시제도는 여러 줄 세우기를 통해 다양한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한가지 잣대 즉, 학업성적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에 익숙해 왔으며 그것이 한 때는 유용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화, 국제화 및 다문화 사회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만이 인제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어느 분야든 특출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

면 그 또한 인재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인재가 더욱 더 필요한 시대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입시 제도도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존의 입시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제는 어느 영역이든 재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인재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사회의 훌륭한 재목으로 키워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형방법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이 필답고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며, 능력과 적성 또한 다양하다. 이런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개인의 가능성과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의 학생선발 방식이 아닐 뿐더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척도도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필답고사 위주의 전형방법을 탈피하여 전인적 평가가 가능한 전형방법을 적극 도입해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수행평가의 신뢰성이 전제된다는 조건하에 학생의 각종 교내·외 활동에 대한 평가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수행평가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외에도 수험생의 각종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자격증 및 수상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방법을 개발하여 전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답고사와 서류평가 외에 중요한 전형방법이 면접고사이다. 기존의 면접고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져 왔다. 언뜻 보면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형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면접고사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면접은 필답고사나 서류평가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고 심사하는 데 매우 긴요한 평가도구이다. 따라서 면접고사를 단순히 의무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점수화 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면접방법도 시간에 쫓기는 걸치레식 면접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험생을 전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면접평가는 어느 평가보다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가위원별로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면접평가위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예·체능계의 실기고사 방식이다. 음악의 경우 연주자의 태도나 표정까지도 능력과 가능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정확하게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교수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교수와 학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서 과연 올바른 평가 즉, 실력만이 아닌 성장가능성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체육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공을 좀 더 멀리 보내고 탁걸이를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의 운동능력이 뛰어나다고는 보지 않으며, 본인의 운동기능이 월등해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겠으나 체육이론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체력측정이 일반화된 입시보다는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이 체육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입시제도의 개선방향은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개략적인 지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대학입시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제고와 그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사회일반의 믿음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도입된 새로운 입시제도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찌 보면 대학입시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은 입시에서 완전한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제도의 개발과 철저한 이행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과 학부모도 이러한 대학의 노력을 믿고 입시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